■ 광주 무등육아원 지난해·올해 추석 후원 비교해보니

온정의 손길 50~80% 줄어

썰렁한 추석 초라한 차례상

추석을 닷새 앞둔 20일 광주시 동구 운림동 무등육아원의 음식·간식 창고는 명절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썰렁했다.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이어졌던 온정의 손길이 올해는 전년에 비해 50~80%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후원금품이 줄면서 1년 중 명절 때만 되면 과자와 음식을 맘껏 먹을 수 있다는 복지시설 아이들의 생각은 이제 옛 추억이 됐다.

이날 현재 무등육아원에 기탁된 후원금은 58만원. 지난해 110만원에 비해 절반 가량인 52만원이 줄었다. 지난 설에도 후원금은 고작 60만원이 뿐이었다. 〈표 참고〉

■무등육아원 명절 후원 물품

	2006년 추석	2007년 설	2007년 추석
후원금	110만원	60만원	58만원
과자 빵 등 (단위:상자·세트 등)	573	86	98
과일(상자)	43	30	32
떡·쌀 등 (포·되 등)	78	42	17

4~5년 전만 해도 300만~4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이 답지하면서 가족 없이 명절 연휴를 보내야 했던 118명의 육아원 아이들은 영화를 보고 여행을 가며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다.

정부는 명절이 되면 아이들에게 1인당 2만1천900원의 위로금을 주지만, 긴 연휴를 남들처럼 풍족하게 보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후원금은 매번 요긴하게 쓰이곤 했다.

후원금을 아이들 몫으로 1인당 1만~4만원까지 나눠줬고, 이 돈을 보태 함께 방을 쓰는 '의형제·자매'들 끼리 평소 가지 못했던 극장과 전남지역 관광지로 놀러 가곤 했다.

육아원 측은 후원금이 부족할 경우 운영비를 쪼개고 관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아이들에게 줄 계획이다.

아이들에게 가장 반가운 명절 후원물품인 과자와 라면도 올 추석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추석에는 15명의 후원자가 ▲신라면 ▲초코파이 ▲빵 등 573상자를 기탁해 '병아리 방' '다윗 방''사랑방' 등 각 방 별로 명절 당일 조촐한 과자 파티도 했었다.

올 해는 19명으로 기탁자는 늘었지만, 후원물품은 90상자에 머물러 전년에 비해 84%가량 줄었다. 육아원 측은 연휴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오전·오후 2차례 간식을 제공할 계획이었지만, 후원 물품이 줄어 자체 운영비를 털어 간식을 따로 구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추석에 쓸 과일·쌀 등도 지난해 각각 43상자와 78포대가 들어왔는데 올 해는 각각 32상자와 17포대 뿐이어서 아이들 차례상이 더욱 초라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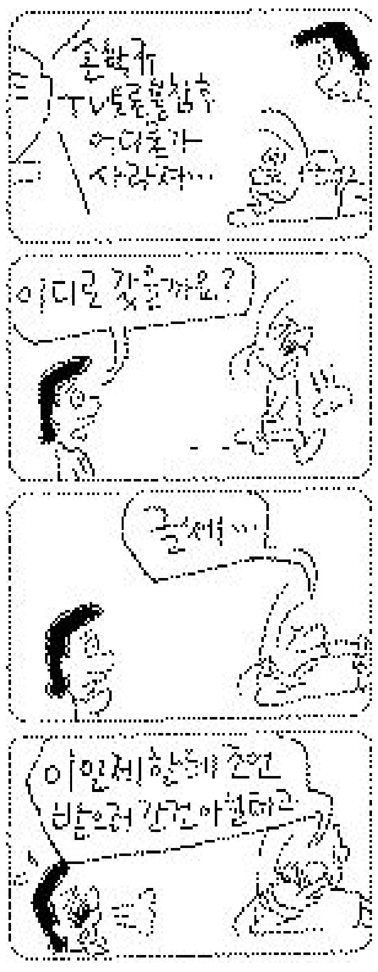
무등육아원 관계자는 "아직도 잊지 않고 명절마다 후원금·물품을 보내오는 고마운 분들이 많지만, 갈수록 명절 후원이 줄어 걱정이다"며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덩달아 줄어드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추석 안전운전 부탁해요" 20일 오후 광주시 서구 쌍촌동 상일중학교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지 말자'라는 어깨띠를 두른 '유아 스쿨' 원생 60여명이 피켓을 들고 추석맞이 안전운전 캠페인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우참 〈7314〉 김종두



백혈병 치료비 훔쳐가다니…

30대 여인, 파렴치한 동거남에 절망

"항암 치료하려고 애써 마련한 돈을 훔쳐가다니,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20일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 한 쪽에는 숨도 제대로 내쉬지 못하는 30대 여인이 연방 굵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자신의 백혈병 치료를 위해 2년간 온갖 고생을 해서 모은 돈 2천만원을 도난당한 이모(여·39·광주시 북구 오치동)씨는 치료비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힘든 기색이 역력했다. 얼굴에는 청색증(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져 피부가 푸른 빛으로 변하는 증상) 증세가 나타났고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씨는 수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초등학생 남매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작은 전셋집을 얻기 위해 2년 동안 악착같이 2천만원을 모았다.

하지만, 그녀는 4개월 전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어쩔 수 없이 치료비를 위해 전세금을 빼냈다. 이씨는 병세가 더욱 악화하자 전북 모 사회복지시설에 어린 남매를 맡기고 지난달 초 화순 전대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 과정에서 집 안방에 숨겨놓았던 현금 2천만원이 사라졌다. 이씨는 신용불량자인 탓에 현금을 은행에 예금하지 못했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항암치료를 받던 중 2년 동안 사귀어 온 최모(29·광주시 서구 화정동)씨에게 치료비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현금과 함께 최씨도 사라졌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하루빨리 나아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와 함께 살고 싶었는데, 이마저 어렵게 됐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뿐"이라는 말만 되뇌었다.

한편, 북부경찰은 최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도난당한 돈을 회수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DS건설(주)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주)본드나라
실리콘·방수재·접착제·테이프

한국 원정 치마속 몰카 일본인 덜미

쌍나팔

○…서울 종로경찰은 20일 캠코더로 여성들의 치마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일본인 K(41)씨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책을 읽고 있던 김모(여·24)씨의 다리 밑으로 캠코더가 든 가방을 집어넣어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14일 입국한 이후 2박3일간 신촌·명동·광화문 등지에서 100여 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

○…경찰은 K씨의 숙소에서 추가로 촬영된 비디오 테이프 20여 개를 확보했으며 K씨가 검거 다음날인 17일에 출국할 예정이었던 만큼 추가조사를 위해 구속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

○…K씨는 경찰에서 "몰래 촬영하는 게 취미다. 한국에 관광을 와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진술. /연합뉴스

쓰러진 벼에 새싹…애타는 농심

계속된 비·태풍에 '수발아 현상' 발생

미질 떨어지고 수확량도 감소 '비상'

계속된 비로 수확기의 벼 낟알이 싹을 틔우는 '수발아'(穗發芽) 현상이 발생해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수발아' 현상은 지난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10여 일간 계속된 비로 1차 발생한 데 이어 이번 제 11호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도내 벼 피해면적은 침수 4천354ha, 도복(쓰러짐) 1만1천960ha 등 1만6천300여 ha에 이른다. 특히 수확기에 접어든 조생종 품종과 모내기를 일찍 마친 중·만생종이 쓰러진 채 방치돼 벼 이삭에서 싹이 돋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수발아' 현상은 비가 많이 오고 대기의 습도가 높을 때 발생하며 쓰러진 7일 후부터 쌀눈에서 싹이 난다. 특히 낟알의 탄수화물 등 영양분을 소모해 미질(米質)을 떨어뜨리고 수확량을 감소시킨다.

4천여㎡의 벼가 모두 쓰러져버린 조기천(69·화순군 도암면)씨는 "연일 계속된 비로 벼(동진 1호)가 모두 쓰러진데다 썩고 싹마저 나고 있다"며 "쓰러진 벼를 세우려면 인건비도 많이 들 뿐더러 그나마 먹을 수도 없어 그대로 두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김을배 식량작물 담당은 "쓰러진 벼는 논물을 뺀 다음 서둘러 수확해 건조기를 이용, 섭씨 50도 이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며 "수확을 20여 일 앞둔 중·만생종은 3일간 물을 2~3㎝가량 대주고 2일은 물을 빼주는 '물 걸러대기'를 해줘 벼 뿌리기능이 약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대낮 만취 성추행' 교육장 직위해제

전남도교육청은 대낮에 술에 취해 식당 앞에서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부속실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남지역 A교육장에 대해 20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식사자리에 참석한 교육과장과 교장 3명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 조치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조사결과, A교육장은 지난 17일 오후 관내·외 교장들과 점심 겸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운전기사 정모씨를 불러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했으며, 교육청으로 복귀해 부속실 여직원을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신문기사와 광고에 대한 불만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누구라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722-1282 www.ikpec.or.kr

곡성서 80대 벌 쏘여 숨져

지난 19일 오전 9시께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 야산에서 벌초를 하러 가던 이모(85·곡성군 목사동면)씨가 말벌 집을 건드려 말벌떼로부터 머리와 발 등 수 십 군데를 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허위기부영수증 세금 포탈

기아차 직원 등 18명 기소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류혁상)는 20일 사찰로부터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포탈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직원 김모(42·반장)씨 등 18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돈을 받고 연말정산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S사찰 주지 김모(61)씨 등 광주시내 사찰 주지 4명과 기아차 광주공장 직원 한모(46)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